

## 2 뉴스

# 계속되는 생협적자 대면수업 재개 관건

강다은 기자 ekdms2002@knu.ac.kr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업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생협 운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비대면 수업으로 주요 이용객인 대학(원)생의 방문이 끊겼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협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생협 매출액은 2019년 76억 원에서 2020년 17억 원으로 약 70% 넘게 감소했다. 약 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10억 이상 감소해 2020년 약 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작년의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생협 측은 “구성원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생협의 운영도 어려워졌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생협은 유급 휴업과 무급휴업, 시간선택제 근무를 번갈아 시행해 주요 지출인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 2019년 14억 원이었던 인건비는 2021년 약 7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현재 생협은 일부 직원에 대해 유급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협 측은 “직원 휴업으로 인해 매장은 휴점과 단축 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협은 코로나19 이후 푸른솔 학생식당과 카페 4개 소 등을 잠정적으로

휴점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운영되는 학생식당은 청운관 학생식당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생협은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대학에 적립했던 ‘복지환경개선기금’ 중 1억2천5백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된 활동을 고려해 서점/기념품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사업을 진행해 적자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생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 ▲매점 ▲서점은 방문자 위주로 운영된다. 이에 코로나19 이전만큼 이용객이 늘지 않는 한 흑자 전환과 수익 개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피해는 생협만의 뜻은 아니다. 생협은 근로장학생 고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와 인원 감축 등으로 생협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장학생을 선별하지 않고 근로장학금 지급을 중단했다.

시설 운영을 두고 학생들의 불편의 목소리도 크다. 김소연(국어국 문학 2019) 씨는 “이전에는 청운관이나 푸른솔 중 한 식당을 택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는데, 푸른솔 학생식당 운영이 중단돼 선택권이 줄었다”며 “현재 청운관도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오롯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대



코로나 19 이후 푸른솔 문화관 내 카페 및 식당이 운영을 중지했다. (사진=강다은 기자)

학의 경우 그동안 휴점하고 있던 학생식당 등 매장을 다시 열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대면수업 비율은 약 12%에 불과한 상태다. 한국외대 등 다수의 대학이 전면 대면 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대면수업 비율이 훨씬 낮은 셈이다.

이에 생협 측은 “대면 수업이 진행된다면 대학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생협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코로나19 시기에 대면시험을 진행했을 때 매점 및 식당 매출 증가로 (매출 신장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생협 측은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대학의 전체적인 정책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다음 학기 수업 운영 방식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면수업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방문이 높아진다면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직원들의 휴업을 해지할 예정”이라며 “매장 운영시간 확대 및 휴점 중인 매장(식당, 커피점, 자판기 등) 역시 재개점을 진행할 것”이라고 추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휴점 매장 재개점 및 신규 채용 여부는 수업 운영 방식 확정 이후 생협이 사회 측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덧붙여 생협 측은 “현 상황을 비롯한 위기 타파를 위해 생협 내 학생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생자치 외국인 학생 외면

서세종 기자 sejong0362@knu.ac.kr

외국인 학생들이 종학생회(총학)와 단과대학(단과대) 학생 자치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총학과 각 단과대는 정보 전달과 공지를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지가 한글로 이뤄져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국제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율루(국제학 2019) 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기조차 어렵다”며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학생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의 편차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계 미국인 유학생 사쿠라 야마카와(국제학 2020) 씨 역시 “국제대학 학생회는 SNS 페이지를 통해 영어로 문의할 경우 영어로 답변을 해주지만, 외국인 학생의 수가 많은 만큼 SNS상의 공지를 영어로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 캠퍼스 총학도 SNS의 모든 공지를 한글로 제공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배려한 안내사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6면으로 이어짐

# 국제대 마일리지장학 수혜 전망

서세종 기자 sejong0362@knu.ac.kr

국제대학(국제대)도 ‘마일리지 장학’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신문은 앞서 국제대가 마일리지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영어 항목 마일리지 장학 못 받는 국제대학 학생/대학주보 제1674호 (2021.09.01.))

마일리지 장학 제도는 국제캠퍼

스 학생의 사회 진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국제화 역량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어학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제대는 마일리지 장학 규정에 따라 국제화 역량 분야 중 영어 항목에 대한 장학 수령이 제한된다. 장학팀이 공개한 마일리지 장학 인

정 기준표에 따르면, 국제대는 ‘대학 특성상’ 제외됐다. 국제대는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2022학년도 입학생 이전까지 단과대학 중 유일하게 영어특기자 전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국제대 학생들은 해당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우수한 영어 실력은 영어 특기자 전형 입학생에 게만 한정되며, 일반 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타 학과 학생들과 영어 실

력이 비슷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대학 특성을 고려하면, 외국 어대학도 어학 성적을 취득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한 국제대 박병준(국제학 2017) 학생회장은 “제도 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지난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 특기자 전형 모집을 폐지한 것 또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학생지원센터 강덕현 센터장은 “현재 논의는 국제대 학생 또한 수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며 “장학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학위원회들이 해당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학기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